

# 4~5일 사전투표...지지층 투표율 높이기 사활

## 대선 사상 첫 실시... 투표율 15% 내외 예상

### 캠프별 '인증샷 마케팅' 아이디어 발굴 심혈

오는 4~5일 대통령선거 사상 첫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주요 대선후보들은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사전투표란 부재자 신고 없이 주소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4~5일 이틀간 실시된다.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은 11.5%(전체 투표자수 대비 20.2%)였고, 지난해 제20대 총선의 경우 12.2%(전체 투표자수 대비 21.0%)였다.

2일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율이 1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무시할 수 없는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은 사전투표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부터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가 허용되면서 캠프별로 기발한 '인증샷 마케팅' 아이디어 발굴에도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또 이번 주말부터 5월9일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져 자칫 선거일 당일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각 후보 선거 캠프는 사전투표에서부터 미리 지지표를 붙들어놓기 위한 방법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먼저 투표위원회'를 구성, 사전투표율을 역대 최대인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독려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해한 공동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일 '두대문'(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엠을 만들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고, 당내 인적자원과 유명인사를 통한 '파란 파도타기 이벤트'와 플래시

몹, SNS 인증샷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 소개 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545(5월4~5일) 얼리버드(Early Bird) 파란 티켓' 캠페인을 시작했고 국내 주요 여행지 인근의 사전투표소를 안내하는 '황금 연휴 사전투표 패키지'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른바 자신이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이름을 딴 'V3' 캠페인으로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

기로 했다. V3는 '투표한(Vote) 뒤 휴가(Vacation) 가고 승리하자(Victory)'의 줄임말이다.

안 후보 역시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이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도록 독려하고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사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초록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 많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안 후보가 당선된다고 생각한다. SNS 등에서 집중적 캠페인을 벌이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도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 인증샷을 올린 투표자 중 500명을 선정해 홍 후보 당선 시 청와대에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도 인증샷 캠페인을 활용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에서도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기에 애쓰고 있다. 최근 20~30대 청년층에서 심 후보 지지율이 급증했는데, 연휴를 앞두고 사전투표 참여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젊은층의 투표율도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거소투표하는 어르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7일 앞둔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세중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로 이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에 신청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도, '인구정책팀' 신설 검토... 인구 늘리기 총력

### 6대분야 99개 시책 중점 추진 종합대책 보고회

전남도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6대분야 99개의 과제를 정하고,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인구정책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김갑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가 참여하는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2위 수준이지만 출생아 수가 매년 줄고,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고회에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각 실국에서 발굴한 일자리 창출, 결혼·출산·양육지원, 교육·관광·문화 진흥, 귀농·귀촌 확대, 정주환경 개선 등 6대 분야 99건의 대응과제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실국에서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로 ▲인구 늘리기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전파 ▲빛가람 콘텐츠타운 조성 ▲생

활거점형 도시 재생사업 ▲청년 창업농장 조성 ▲제대(예정)군인 지역 정착 및 취업 지원 ▲대학 학자금 마련 '희망 디딤돌 펀드' 조성 ▲한방 난임치료 지원 ▲'생명의 땅 전남' 주스갯기 운동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인구 감소 대응을 주제로 워크숍, 토론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개최해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 위기 극복에 참여

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전남도 차원에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가칭 '인구정책팀' 신설을 검토하고 인구문제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갑섭 부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인구 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 진입, 출생아 수 역대 최저인 40만 명 붕괴, 노인인구와 유소년인구 수 역전 등 인구 관련 4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해"라며 "특히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은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제 발굴에 온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트럼프, 김정은 만나나?

### 취임 후 첫 대화용의 밝혀

### 대북 압박 강화용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돌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상황이 적절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조건부 대화이긴 하지만 그가 취임 후 직접 대화 용의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향후 대북 정책의 무게중심을 대화 쪽으로 옮기려는 신호탄일 가능성도, 이와 반대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그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것은, 다시 말해, 적절한 환경 아래에 놓여있다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좌중우돌식으로 워낙 돌출발언을 해온 점에서 그의

발언에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담겼는지는 쉽게 가늠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가 김정은과 만나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다"라는 다소 영동한 표현을 썼다는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능력'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은 대화 현실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일 수 있다. 그는 전날 방송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두고 "삼촌이든 누구든 많은 사람이 그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며 "분명히 그는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 김정은을 '협상 파트너'로 염두에 뒀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앉는 데는 '비핵화' 벽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에게 '칭찬'에 가까운 발언을 하고, 하루 만에 대화론까지 꺼졌던 것은 역으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 2027년까지 영산강변 폭 10m 이상 숲 조성

### 수변림·가로수 등 5가지 테마

오는 2027년까지 영산강변을 따라 폭 10m 이상의 숲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조경·환경·생태·관광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경관숲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 연구 책임을 맡은 김은일 전남대 교수는 "꽃과 나무가 무성해 아름다운 영산강 숲의 뜻을 담은 '영림(榮林)'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생태계 보전, 녹지네트워크 조성, 경관 창출, 수변 문화 휴식공간 조성 등 4가지는 목표로 삼았다. 영림은 ▲영산강변을 따라 규모

있는 선형 녹지인 '수변림' ▲영산강의 과거·현재·미래의 공간인 '천년숲' ▲역사·문화·경관자원인 '누정을 숲과 함께 관리하는 '누정숲' ▲주민 참여의 생활밀착형 당산숲인 '마을숲' ▲영산강변 드라이브 코스 '가로수'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수변림은 영산강을 따라 최소 폭원 10m 이상(목표 30m)의 숲으로 경관 창출은 물론 경자치 비점오염원 정화 기능을 해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까지 담양에서 목포까지 8개 시군에 걸쳐 영산강변을 따라 수변림 62ha, 천년숲 3개소, 누정숲 5개소 등 5개 사업에 16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완도 해조류박람회 관람객 목표치 60만명 넘었다

### 9일만에... 폐막까지 80만 예상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찾은 관람객 숫자가 목표치인 60만명을 조기 넘어섰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일 오전 10시 2분을 기해 목표 관객 6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24일 박람회 개막 이후 9일 만이다.

박람회조직위는 오는 7일 폐막까지 남은 기간 최소 20만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종 누적 관람객 수는 8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60만번째 입장의 영예는 목포해인여중 2학년생 박수빈 양이 차지했다. 박양은 리조트 숙박권과 완도 특산물 등을 선물로 받았다.

조직위 관계자는 "외국인 관객 2만 7000여명도 포함돼 있는데 박람회 폐막까지 외국인 관람객 목표 3만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바닷말의 약속 미래에의 도전'을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완도=정은기자지·서부취재본부장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 화정역 1호선에서 100m가량 직진 후 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사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